

광주 중앙공원1지구 기부채납액 역대 최대...8000억 넘길 듯

선분양 전환 확정시 최초 비용 5003억원에 3000억원 증액 사업 안정성·공공성 강화...시민 복지 증진·편의 위해 사용

광주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의 기부채납액이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광주시가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3조2446억원)의 25%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8일 (주)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아파트) 분양 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분양가를 3.3㎡당 2574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광주시와 합의 중이다.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아파트)은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포함) 규모다.

사업자측은 선분양 전환 계획 등이 예상대로 확정되면, 최초 확정된 기부채납 비용 5003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늘어난 8000여억원을 광주시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는 최초 확정된 중앙공원 1지구 기부채납 비용 5003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21년 후분양 전환과 세대수 증가 등 사업조정을 통해 증액된 5996억원보다도 25% 정도 증가한 액수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를 포함한 9개 민간공원(10개지구) 특례사업을 통해 받은 전체 기부채납액은 시 전체 자산의 20%에 해당하는 총 2조

542억원 규모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앙공원 1지구의 기부채납 비용이 확정되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기부채납액의 38%를 차지하게 되며, 이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는 토지보상금 등 5080억원을 광주시에 선납한 상태다.

중앙공원 1지구 기부채납 비용 증액은 사업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증액된 비용은 광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편의를 위해 중앙공원 1지구 인근 및 서구 내 문화시설·도로망 확충, 공원 조성 등에 사용하게 된다는 게 사업자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중앙공원 1지구 기부채납 규모는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사업 중 규모나 비용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광주시가 최근 확정된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액 5899억원보다도 2100여억원이나 많다. 반면 '돈되는 아파트 건립 세대수'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4186세대로, 중앙공원 1지구(2772세대)보다 1414세대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예초 2021년 광주시와 합의한 안에 '고분양가관리지역 해제 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을 기부채납 상향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증 절차가 빠



광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구 풍암동 '중앙1지구 민간공원특례 사업지'에서 기초 공사가 한창이다. 사업자측은 8개의 테마숲을 갖춘 명품 공원과 함께 2772세대 규모의 명품 롯데캐슬 시그니처아파트를 신속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르게 마무리되고, 광주시에 추가적인 기여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6년부터 9개 공원(10개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

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는 전체 면적의 0.30%를 차지하는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규모의 중앙공원 1지구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는 지난달 말 광주시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절차

를 모두 마쳤으며,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광주시 서구청과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립 공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달빛철도 특별법 또 법사위 상정 무산...21대 국회 통과 불투명

국회 법사위 단계서 제동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8일 광주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안건 124건 중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한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 법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물론 여야

의원들은 연내 통과를 기대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차례 계류된 후 같은 달 21일에야 겨우 통과됐다. 당시 예비타당성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과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대거 수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바로 전 단계인 법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계류 중인 다른 안건이 많고 상정 순서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달빛철도보다 늦게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반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연장 198.8km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대 여성 절반, 정상이어도 다이어트

6~7명중 1명은 저체중...남성 비판 늘지만 체중감량 비율 줄어

20대 여성 6~7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며,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 경우도 절반 가까이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비만 유병률이 늘고 있지만 정상 체중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비율은 줄어 대조적이었다.

8일 질병관리청의 '우리나라 성인의 체질량지수

분류에 따른 체중감소 시도율 및 관련요인' 논문을 보면 2013~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9~29세 여성의 15.1%가 체질량지수 18.5 미만인 저체중 상태였다.

이 연령대 여성 6~7명 중 1명은 체중이 정상치에 못 미친 셈이다. 2019~2021년 기준 저체중 비중은

14.8%로 2016~2018년 12.4%보다 2.4%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저체중인데도 체중감량을 시도한 경우는 16.2%나 됐고, 정상체중(체질량지수 18.5~23.9)의 55.8%이더라도 53.9%가 체중을 줄이려는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두 경우를 합하면 저체중이거나 정상체중인데 체중감량을 시도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6.0%나 됐다.

논문에서는 "임신 전 저체중은 반복성 유산 등 부정적 임신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美 'CES 2024'서 혁신기술 선보인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 기술 전시회...13개 지역기업 전시관 운영

광주시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 기술 전시회인 미국 'CES'에서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지역 참가기업도 두 자릿수로 늘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광주 공동관', '통합 한국관 내 광주관' 등 2개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참가 기업은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3개로 늘어났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그동안 가전, 모빌리티, 메타버스에 이어 올하는 인공지능(AI)이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광주 공동관에는 CES 2024 혁신상을 받은 인디제이의 AI 음악 추천 라디오 스트리밍 '인디제이', 인트플로우의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가죽 관리 솔루션 '엣지팜', 다비다의 온라인 학습 솔루션 '지니클래스'와 연동 디지털 교구 '지니펜' 등이 전시된다.

또 제타뱅크 인공지능헬스케어연구소, 뉴작, 블루캡슐, 답메디, 벤덱프린터, 아트랩, 마이렌, 튜닉 등도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통합 한국관에서 에이버츄얼의 공기정정 살균기, 엔서의 치매 진단 의료기기 등 지역업체의 제품이 전시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CES에서 선보이는 광주의 혁신기술과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실증센터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대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면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소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주)알스케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010-4484-8110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합병공고

2024년 1월 4일 (주)중앙정보통신 대표이사 주원호(김)와 (주)디아이이씨 대표이사 주인용(윤)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 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 절차에 따라 (주)의 재산(영업)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관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이 합병하고 (윤)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할합병 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제140062호
2. 분할합병 예정일: 2024년 2월 13일

2024년 1월 9일

"김" 주식회사 중앙정보통신
전남 목포시 비변로 70(상동)
대표이사 주원호

"윤" 주식회사 디와이아이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박영대로1556번길 16, 246호
(영통동, 디지털밸리아이비딩)
대표이사 주인용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칼빌딩

월 3천7백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0억 (현금34억)

010-3646-8700(직거래)